

## 中世哲學과 基督教 【三】

金允經

七, 어거스티누스(Augustinus, 354-440.)

어거스티누스는 紀元三百五十四년에 누미디아에서 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異教徒였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는 篤實한 그리스도 敎徒였습니다. 어거스티누스에게 그리스도敎的 敎育을 주고 宗教的 □化를 받게 한 것은 그 어머니외다. 그러나 그는 學問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성을 내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 中 有名한 詩人베길(Virgil)의 글을 읽고 趣味를 붙이어 修辭學에 뜻오르두게 되었습니다. 靑年 時代의 그의 生活은 아주 放蕩不良하여서 그 어머니의 忠告도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落生活에 물들면서도 한편으로는 理想의 追求에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種種의 哲學을 읽어서 內心의 苦를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注意한바는 마니敎나 데 마니(Mani, 218頃-277頃)를 敎祖로한 宗教의다. 그 敎는 波斯의 琐羅亞士德敎와 그리스도敎의 『노시쓰』 統을 折衷한 二元論의 思想의다. 卽 善과惡 或은 빛(光)과 어둠(暗)이라는 두 神을세우고 이 世界는 이 두 神의 爭鬪場이라보아 禁慾生活로 因하여 善 或은 빛의 靈으로 하여금 惡或은 어둠의 肉을 征服하게 함을 目的하는것이외다.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惡에 對한 本能的인 衝動과 善한것에 向하려는 理性的 要求의 矛盾을 說明하는것이라고 보아 그는 一時 이에 歸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論理學, 數學, 天文學들을 研究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學統을 읽은 結果로 次次 마니敎의 空想的임을 엿보게 되어 新 『아카데미』의 懷疑論으로 달아나게 되고 마침내는 新플레톤學派에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어릴 때 어머니의 敎訓을 생각하고 □經을 研究한일도 있으나 큰 趣味는 얻지 못하고中途에 拋棄하였습니다. 이같이 內心의 狀態가 動搖하고 混亂하게된 中에 갈다고, 밀란等地에 修辭學敎師로 遊浪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다가 紀元三百八十六年 三十一歲되던 새에 밀란에서

밀란의 大僧正인 켈트· 암부로지우쓰(St, Ambrosius)의 熱烈한 信仰說을 들  
시고 前過를 悔改하고다시 그리스도敎徒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고 三百  
八十七年에 켈트·암부로지우쓰에게 洗禮를 받고 卍을 버리고 隱遁生活과 禁  
慾的 修道院生活을 하다가 紀元三百九十五年 到 히포 監督이되어 終身하도록  
三百五年間 在職한 것입니다.

그의 學說은 大概 두 傾向으로 區別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自我의 意  
識의 確實한대서 出發하여 外界의 認識을 說明하며 마침내 一切의 것의 根  
底인 神에 到達함이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信仰을 中心으로 하여 敎義  
의 組織을 뜻한 것이외다. 前者는 그의 哲學이고 後者는 그의 神學이외다.  
먼저 그의 哲學붙어 살펴어보면 그는 나중의 笛카르트와 같이 懷疑와 自己認  
識에서 出發하였읍니다. 그리하여 一切의 外的 存在는 疑心할만한것이나 이  
疑心한다는 事實은 疑心할수 없으며 疑心한다는 일에서 疑心하는 것과 疑  
心되는 것이 確實한즉 認識의 標準이 全無하다면 疑心한다는 事實도 不可  
能한 일이외다. 이같이 하여 內的 經驗이 確立되는 것이나 外的經驗은 어떠한  
가 하면 먼저 感覺의 世界, 現象의 世界는 生滅 無常의 世界로서 確實한 存  
在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世界를 認識하는 것은 感性(Sensus)인데 이것  
으로 된 外界의 認識은 眞理가아니고 憶見(Opion)에 그치는 것이외다. 그러  
하나 이 現象世界가 나타나기 爲하여는 그 根底에 무엇인가 더 높은 實在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大抵 우리는 感性外에 理性(Ratio)을 가지어서  
이것으로 因하여 一般普遍的 認識 卽 永遠的 眞理(Veritates aeternae)에 達  
하는것이외다. 가령 數學上의 定理라던가 命題라는 것은 理性의 構成하는 것  
이며 또 同時에 이것은 感覺世界의 事物에도 適用되는 것이외다. 論理學 上  
의 모든 規則이라던지 倫理學 上의 여러 가지 規範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超主觀的인 眞理요. 個人의 지어낸 것은 아니외다. 이러한 眞理의 根據는 絶  
對的 眞理, 最高의 實在로서의 神이외다. 이같이 自己認識의 確實을 믿는 以  
上 우리는 다시 神의 實在를 믿지 아니할수 없는 것이외다. 우리는 神의 實在  
로 因하여 여러 가지를 認識하게 되나 神은 이것들의 一切를 包含하고 있는  
最高의 眞, 善美의 根源이외다. 神을 이같이 眞理의 總體라고보는 생각은 神  
에서 理性, 靈魂, 物質의 各世界가 流出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외다. 이 學說  
은 神그것이라. 본 플로티노쓰의 哲學的 宗教를 聯想하게하나 그는 이것에서  
본받은 것이지만 그는 神을 人格的 絶對的 宗教的 神을생각하며 萬物은  
神에서 流出한 것이 아니고 人格的 神의 創造한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외다.

그다음으로 어거스티누쓰의 神學方面을 살펴어보건대 그의 神學은 人性論  
의 問題 卽 人類의 罪惡과 그 救援에 關한 問題외다. 그리하고 그는 사람의

罪惡에 對하여는 原罪說, 救援에 對하여는 豫定說을 세운 것입니다. 그 외 말한 바를 들으면 사람은 罪가 깊은 것이외다. 그리하여 만일 사람에게 意志의 自由가 업다하면 罪란것이 없을 것이외다. 自由가 있어서 罪가 생긴 것이외다. 그리하나 사람은 아주 罪惡에 束縛이 되게 되어서 그것을 벗을수없이 奴隸의 狀態에 있게 되었읍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罪의 根源이 意志의 自由인 까닭이라 하면 罪의 罪되는 原因은 어대에 있는가하면 그는 이것을 아담에게 돌리 었읍니다. 아담은 善惡選擇의 自由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잘못 罪惡을 犯하였으므로 그의 子孫은 罪의 子息이 되게 되었다 본 것이외다. 그다음으로 그리하면 사람을 이 같은 罪惡의 狀態에서 어떻게 救援할까의 問題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먼저 말한 대로 原罪를 가지고 있는 罪惡의 奴隸가 되어 自由를 잃었으므로 自己스스로는 自己의 罪惡에서 벗어나게 할힘(即自力)이 없읍니다. 따라서 救援은 絶對的 意志의 神의 恩範인 故로 어느 사람이 救援을 받을까는 神의 意志로 豫定되는 것임으로 사람은 自己의 힘으로는 不可能한것이외다. 이것이 豫定說이외다. 그리하고 神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救援하게한 故로그리스도 外에는 될수없는 것이외다. 그리스도가 그 代理者되는 敎會에 依支함이 아니고는 救援은 不可能한것이외다. 入敎者 全部가 救援되는 것은 아니나 敎會以外에는 絶對로 救援이 없는 것이외다. 이 原罪說과 豫定說은 當時 펠라지우스(Pelagius)의 學說과 對立되는 것으로서 펠라지우스는 罪는 사람의 自由意志에 因한것이요. 原罪는 아니니 아담은 다만 罪의 典例가 되었음에 不過함으로 사람의 救援사람의 自由意志로 받을수 있는 것이라 하였읍니다. 이에 兩者間에 論爭이 생기게되매 敎會는 펠라지우스를 異端이라고 排斥하고 어거스티누스의 學說로 敎會의 思想을 確立하게 되었읍니다.